

# 핵군비통제의 보호는 전세계의 책임입니다

## 글로벌 그룹 성명서



세계는 무엇보다 절실히 핵군비통제를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북미, 아시아와 태평양의 50개국 안보 정책 지도자로서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P5")의 지도자들에게 핵군비통제가 지정학적 경쟁의 또다른 희생을 만들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를 요구합니다.

지난해 1월에 P5의 5개국 지도자들은 전략적 리스크의 감소 및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간의 전쟁 방지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어야 하고, 핵 전쟁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며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2022년 11월에 G20 지도자(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를 포함)들도 핵무기 사용 및 핵 사용 위협은 인정할 수 없다고 공통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러 간 전략적 안정 협상은 불확실한 상태이며 상호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하 New START)은 이제 불투명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핵군비통제 협정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조약의 와해 및 종료는 불안정한 군비 경쟁을 위협할 것입니다.

New START가 2026년 2월 만료되기 전에 그에 대체할 새로운 핵군비통제 체계 합의가 실패해 중국, 프랑스, 영국은 모두 미국과 러시아가 핵비축을 줄이기 전까지는 그들의 핵병기 저장량을 제한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3국을 다자간군비통제에 참여시키는 것 역시 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악화되고 있는 강대국 경쟁은 핵확산금지조약과 같은 체계 안에서 일반적으로 핵군비통제의 진전과 리스크 감소를 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약에 의거한 의무 유지에 실패하면 우리 국가와 집단의 안보는 약해지고 정치력 시험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오래전에 우선 순위를 핵군비통제에 두는 것과 단독적, 상호적 그리고 다자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는 P5 핵무기보유국이 다양한 레벨에서의 전략적 안정 회담의 시작 및 P5

형식에서의 전략적 위험 감소 회담의 재개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미국이 핵군비통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를 요구합니다.

- 아직까지는 위반되지 않은 배치된 핵무기가 New START의 제한을 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인.
- New START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장애물 제거 및 양자협의위원회의 업무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동의.
- New START가 2026년에 만료되기 전에 후속 조치를 위해 선의의 협상을 추진할 것에 대한 약속.

우리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모든 가맹국 및 기타 가맹 거부국이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조약의 발효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ELN), 아시아 태평양 핵비확산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 및 기타 기관